

유가(儒家)의 통치관

송석언* · 진희권**

目	次
1. 들어가면서	3. 유가의 이상사회
2. 유가의 통치관	4. 결 론

1. 들어가면서

역사적으로 중국은 하(夏)왕조로부터 춘추전국시대를 거쳐서 진·한대에 이르면서 거의 완벽한 국가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중국에서는 국가의 존재에 대하여 별다른 부정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국인의 학문적 태도가 그렇듯이 존재하는 것을 부정하거나 그 생성 또는 기원에 대한 논의보다는 그 운용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 대해서도 그 생성이나 기원에 대한 논의보다는 현재의 운용이나 지향목표 등에 관한 논의가 많이 되어왔다.

이러한 국가의 운용이나 이상국가에 대하여는 중국의 계몽주의라 할 수 있는 춘추전국 시대에 등장한 제자백가의 주요 논제로 등장하였다. 당시 춘추전국시대의 제후국들은 패권을 잡기 위하여 부국강병에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제자백가들의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가지고 제후를 만나 설득하고 다녔다. 동용되는 경우 신분의 보장과 더불어 부를 획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신분상승의 수단으로서 제자백가들은 다양한 부국강병책을 제후들에게 제시하였던 것이다.

중국의 통일은 법가를 받아들인 진(秦)에 의하여 가능하였다. 그러나 법가의 부국강병책은 엄한 법에 의한 통치였기 때문에 혼란한 시기에 질서를 세우는 방법으로는 타당하였지만, 나라를 세운 후에 평화를 유지시켜나갈 수성(守城)의 방법으로는 충분하지 못

* 제주대학교 법학부 부교수

** 사회발전과 법정책연구소 특별연구원, 법학박사

했다. 따라서 한(漢)나라는 중국을 통일하고 나서 국가를 유지시킬 방법으로 유교적 방법을 적극 수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한나라의 통치관은 그 이후 중국의 전형적이 통치관이 되었고, 주변국들도 그러한 통치관을 받아들였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삼국시대부터 받아들인 유교문화는 고려시대에는 국가의 기본적인 통치구조를 유교의 통치구조인 당의 제도에서 받아들였다. 조선에 와서는 더 나아가 생활문화에까지도 유교를 받아들여 유교입국을 하였던 것이다.

조선에서 당시 유교문화를 받아들이면서 특이한 것은 국가의 통치에 관하여 당대의 성리학적인 태도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유교의 전형인 원시유가의 통치관을 본받으려 했다는 것이다. 국가운용의 기본으로 당시 주자에 의하여 완성한 성리학은 부국강병책을 국가 중심으로 파악하였던 것에 비하여 원시유교인 유가의 태도는 국민의 뉘에 중점을 두었다.¹⁾

결국 유교적 문화를 원시유가인 공자 맹자 순자의 통치관의 모습은 조선개국을 통하여 선조들이 추구하고자 하였던 통치관의 전형인 것이다.

2. 유가의 통치관

(1) 유가의 국가구조 -분별의 사회

유가사상은 분별을 바탕으로 세우고 있다. 우선 우리가 사는 세계를 다스리는 주체로 그 능력과 역할에 따라 크게 천·지·인으로 나누며, 사람이 사는 사회는 그 역할에 따라 군주와 관료와 백성으로 구분하고, 생산을 담당하는 백성도 업종에 따라 크게 농·공·상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구분은 세계의 운영에 대한 인간의 역할이라든지 사회구조 속에서의 각자의 역할 또는 생산에 있어서 역할분담을 통하여 더 나은 사회를 구성하기 위함이었다.

역할분담을 통하여 세계를 경영하는데 있어서 인간은 하늘이나 땅의 역할에 대하여는 아무런 의심없이 인간의 생활에만 힘을 기울일 수 있었다. 하늘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 사계절의 순환과 빛과 비바람을 인간에게 주고, 땅은 그 성질에 따라 적절하게 생명을 키워나갔다. 인간은 그러한 천지(天地)의 질서 속에서 인간의 역할만 하면 되었다. 유가에서 하늘을 도덕적 존재 또는 자연적 존재이라는 것은 바로 자연의 법칙은 항상 해마다 되풀이되며 이러한 되풀이는 인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았던 것이다. 겨울의 뒤에는 반드시 봄이 찾아오고, 밤이 뒷자락에 낮이 반드시 이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영구적인 자연의 질서 속에서 인간은 천지의 도덕적인 면을 보았으며, 인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역

1) 진회권, 「조선조 초기의 유교적 국가이념과 국가 질서」,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98), 7면이하 참조

할을 꾸준히 하는데서 인간은 하늘을 자연적인 -스스로 움직이는 - 존재로 보아왔던 것이다.²⁾ 이러한 천지자연의 질서 속에서 인간은 오직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여 인간의 삶에만 관심을 가지면 되었다.

이러한 역할분담은 인간의 세계에서든 적용되는 것으로, 세계경영은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이 참여하여[參] 이루어지듯이 인간의 세상은 군주와 관료와 백성들의 올바른 역할분담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2) 군주론

1) 군주의 전형

요(堯)와 순(舜)은 유교에서 가장 흠모하는 인물이다. 그들은 도덕의 완성자로서 거의 완전한 인격체이며, 그들의 정치는 유교의 왕도정치(王道政治)의 모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가) 요의 통치

㉠ 덕치의 모범

요는 모든 것에 대하여 밝은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다. 왕의 지위에 있는 자가 백성을 위한 통치를 함에 있어서 언어와 문자에 의한 통치는 부자연스러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요는 그러한 방법으로 교화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즉, 모범을 보임으로서 백성을 가르쳤던 것이다. 그는 사려 깊고 온화한 성품으로 가족을 평온하게 하고 공손하고 예의와 사양을 갖춘 생활태도는 친지들을 감복시키고, 나아가 백성들에게 모범이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교화가 되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이 堯를 따르고, 온천하가 요의 도덕적 인품에 감화되어 천하가 평화스럽게 되었다.³⁾

요는 자신의 소유하고 있는 권력으로 백성을 통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지고 있는 원만하고 고상한 인격을 생활 속에서 보여줌으로서 다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감화되게 하여 천하의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게 하였던 것이다. 여기서 바로 유가의 정치철학인 덕치의 원류로서, 천하를 다스리는 방법이 나타나고 있다.⁴⁾

㉡ 인문세계의 개척자

요가 살던 시기는 고고학적으로 신석기의 말기이다. 당시는 원시농경사회로서 농사를

2) 중국이나 한국의 경우 사시사철이 뚜렷한 반면 유럽에서는 계절이 우리와 같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 동서양이 계절은 바로 하늘에 대한 이해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한다. 우리의 하늘은 뚜렷한 사계절로 인하여 인간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하늘의 모습으로 나타난데 비하여 서양은 모호한 계절의 변화로 인하여 하늘에 대한 이해도 신비 내지는 권위주의적인 형태로 변한 것이 아닌가 한다.

3) 『尙書』, 『堯典』, “帝堯 欽明文思安安 允恭克讓 光被四表格于上下 克明俊德 以親九族 九族既睦 平章百姓 百姓昭明 協和萬邦 黎民於變時雍”.

4) 김충열, 『중국철학사』, 예문서원, 1996, 115면.

짓고 가축을 기르며 정착생활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기에 가장 두려움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을 자연의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요는 바로 자연의 질서를 잘 살피서 농경을 하는데 필요한 계절의 변화에 대한 실용적인 지식을 백성에게 알림으로서 생활을 안정시켰다. 요는 먼저 신하를 시켜서 자연의 변화를 조사하게 한다. 춘하추동의 변화가 일정하므로 관찰을 통하여 씨뿌리는 적기는 언제이고 추수는 어느 시기에 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백성들에게 자세히 알리게 하였다. 이 일은 4명의 신하에게 맡기는데 각각 춘하추동의 계절을 맡아서 그 계절에 알맞은 정사를 펴서 모든 백성들이 삶을 풍족하게 하였다.⁵⁾ 그는 이처럼 백성들이 천시(天時)에 맞추어 농경을 영위하고, 지리(地利)에 맞추어 생활시설을 갖추고 기후와 계절에 적합하도록 생활을 영위하게 하여 모두가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이다.

그는 이렇게 천시, 지리, 인사(人事)를 조화시켜 자연에 순응하면서 농경을 영위하게 한 인문세계의 개척자로 평가받고 있다.⁶⁾

㉔ 왕위의 양위

요는 또한 사람을 등용하거나 후계자를 정하는데도 후세의 모범이 되고 있다.

그는 신하를 등용하는데 사사로운 정이나 친근함에 얽매이지 않고, 덕이 있는 자를 등용하고자 하였다. 세상은 도덕적으로 성숙된 자만이 다스릴 수 있다는 요의 태도는 치도(治道)의 이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요의 사고는 자신의 제위를 이양하는 방법에서 극명히 드러난다 하겠다. 그는 먼저 자신을 보좌하고 있는 신하중 사악(四岳)에게 자신의 제위를 물려받을 것을 제의한다. 그러나 그들은 요의 이름에 누가 될까 봐서 제위를 맡기를 사양하고 다른 도덕적 인물을 천거한다. 그가 바로 순이다. 요는 사악들이 추천한 순이 당시 혼인 전이라는 것을 알고 자신의 두 딸을 그에게 시집보낸다. 요는 순이 자신의 두 딸을 한집에서 데리고 살면서도 잘 화합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비로소 등용한다. 그리고 등용후 그의 관료로서의 능력을 충분히 시험한 다음에 제위를 물려주었다.

유한한 생명을 지닌 인간으로서 천하의 경영권을 권 자는 자신의 후계자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는 자신의 자식에게 물려주어서 자신의 가문에 대대로 천하의 주인의 자리를 잇게 하는 사심이 들어갈 여지가 매우 많다. 그러나 요는 그러한 사심 없이 어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선택하여 천하의 경영권을 물려주는 선양(禪讓)을 행하였던 것이다.

요는 현자를 발탁하여 쓰는 것이 왕의 커다란 의무이며 또한 천하는 천하에서 가장 현한 자에게 맡겨야 한다는 치도의 이상을 실현한 왕인 것이다.⁷⁾

5) 『尙書』, 『虞書, 堯典』, “乃名義和 欽苦昊天 曆象日月星辰 敬授人時 分命羲仲 宅嵎夷 曰暘谷 寅賓出日 平秩東作 日中星鳥.....”.

6) 김충열, 앞의 책, 118면.

7) 김충열, 앞의 책, 118면.

나) 순의 통치

㉠ 효의 전형

순은 역산(歷山) 아래서 밭을 갈고 질그릇을 굽던 천한 신분의 사람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소경으로 완고한 고집쟁이이며 매우 불순한 자이고, 어머니가 일찍 죽자 새로 들어온 계모는 간사한 사람으로 순을 매우 미워했다. 또한 그의 이복동생 상(象)은 심술궂었는데 부모의 마음에 들어서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순은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와 화순하려고 애쓰면서 가족을 잘 다스렸다. 그래서 그의 효는 일가뿐만 아니라, 온 나라에 미쳤다고 한다.⁸⁾ 이러한 효제(孝悌)로 세상에 이름이 알려져서 사악으로부터 차기의 제왕으로 추천을 받기에 이른다. 순은 등용되고 나서 28년 동안 요와 같이 통치를 한다. 그러나 요가 죽자 순은 요의 아들 단주(丹朱)에게 제위를 주고 다른 지방에 몸을 피한다. 그러나 모든 백성들이 단주를 따르지 않고 자신을 쫓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비로소 제위에 오르게 되었다.⁹⁾

㉡ 오륜(五倫)의 창제

순은 백성을 다스리는 지위에 올라 먼저 교육의 근본을 바로잡는 일을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는 먼저 가족 구성원간의 근본적인 도의를 바로잡는데 힘을 쓴다. 상서(尙書)의 순전(舜典)에 ‘오전(五典)을 삼가 아름답게 하라 명하자 오전이 순조롭게 행해졌다’¹⁰⁾는 것이 그것이다. 오전이란 부·모·자·형·제 등의 도의를 말하는 것으로 한 가족을 이루는 구성원간의 지켜야 할 도리를 밝혀 낸 것이다. 순은 이렇게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를 이루는 가족간의 근본적인 도의를 확고하게 바로잡는 일을 먼저 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러한 근본적인 도의를 지켜서 순화되었던 것이다. 순은 이런 후에 여러 벼슬을 거치면서 내정을 안정시켰고, 외교사절을 맞는 일을 맡아 외교를 화목하게 하였으며, 산림과 강과 늪지를 다스리느라고 모진 풍상을 겪어야 했다.¹¹⁾ 그러한 속에서 순은 요에게 신임을 얻어 제위를 받게 된다. 그는 가장 미천한 신분에서 가장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서 성왕(聖王)의 경지까지 간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가족내의 윤리를 바탕으로 하여 천하를 통치함으로써 유가통치의 근본을 보여 준 군주였다.

㉢ 중(中)의 정치

순은 정치를 하는데 있어서 개인적인 감정을 뒤로하고 마음을 항상 열어 놓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래서 순은 우(禹)가 비록 범죄자의 아들이지만 등용하여 치수(治水)의 일을 맡긴다. 치수가 성공하자 사악의 추천으로 그에게 관리의 우두머리를 맡기고 결국에는

8) 『尙書』, 「堯典」, “髡子 父頑 母嚚 象傲 克諧以孝 烝烝乂 不格姦”.

9) 『孟子』, 「萬章上」참조.

10) 『尙書』, 「舜典」, “慎徽五典 五典克從”.

11) 『尙書』, 「舜典」, “納于百揆 百揆時敘 賓于四門 四門穆穆 納于大麓 烈風雷雨弗迷”.

자신의 제위를 물려준다. 순은 당시 여러 관직을 설치하여 각각 책임자를 임명함에 있어서 반드시 그는 주위의 추천과 사람 됨됨이, 능력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책임자를 등용하고 있음이 곳곳에 보인다.

그는 인재를 등용하여 그들에게 합당한 직무를 맡기는데 정책방향이나 결정 등은 군왕의 전권인 것이다. 즉, 왕은 최고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中을 잡아야 하는 커다란 임무가 있는 것이다.

공자는 순임금을 평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순은 지혜로우신 분이였다. 순은 사람의 일을 묻고 살피서 여론에 귀를 기울였으며, 선을 권장하고 악을 억제하였다. 그 양극단을 가지고서 그 중(中)으로 백성을 다스렸으니, 이것이 순의 위대한 모습이다.¹²⁾

순은 중을 실행한 임금이고 이 중을 우에게 전수한 임금이기도 하다. 중은 바로 중용의 중이다. 어느 곳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천지(천지)의 생물지심(生物之心)을 바로 받아서 만물경영에 이바지하는 본 모습인 것이다. 순은 이러한 통치를 행하는데 있어 먼저 주위의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그러한 주위의 여론에 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한 것이 아니다. 하늘과 땅이 만물을 만들어 낸 그러한 마음을 체득한 순은 항상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하여 천지와 만물 그리고 인간이 각자의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사사롭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통치를 행했던 것이다.¹³⁾

2) 유가의 군도(君道) - 홍범구주(洪範九疇)

유가의 군도는 홍범구주에 집약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주(周)의 무왕(武王)이 은(殷)의 주(紂)를 몰아내고 천하를 통일한 후에 은의 충신인 기자(箕子)를 찾아가 가르침을 받는다. 비록 두 사람의 관계는 원수였지만 무왕의 질문은 백성을 위하여 정치하는 방법을 묻는 것이어서 사심을 버리고서 기자는 그에게 홍범구주를 설한다. 홍범구주는 오랫동안 황하유역에 살던 중국인들이 기후에 맞추어 농경을 하고 인지를 개발하고 덕을 수행하며 인륜을 숭상하는 과정에서 사회와 국가를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경험의 축적인 것이다.

홍범구주는 말 그대로 아홉 가지의 근본이 되는 준거라는 의미이다. 그 첫째는 인간이 살면서 부딪히며 이용하고 있는 재료인 오행(五行)이고, 둘째는 사람이 자신을 세우고 타인과 매개하는 인간의 면모인 오사(五事)이며, 셋째는 국가를 다스리는데 필요한 부서인 팔정(八政)이고, 넷째는 하늘의 질서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역법인 오기(五紀), 다섯째는

12) 『中庸』, 「第6章」, “子曰 舜其大知也與 舜好問而好察邇言 隱惡而揚善 執其兩端 用其中於民 其斯以爲舜乎”.

13) 김충열, 앞의 책, 122-123면.

통치의 원리인 황극(皇極), 여섯째는 공동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삼덕(三德), 일곱째는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의(稽疑), 여덟째는 농경을 하는데 필요한 기상과 기후에 관한 서징(庶徵)이며, 아홉째는 인간의 운명에 관계된 오복과 육극(六極)이다.¹⁴⁾

이중에서 왕도의 전형을 잘 나타내고 있는 황극만을 살펴보면, 그 내용은 군왕이 국가라는 공간적 영역에서 인민에게 실현해야 하는 정치의 표준이자 모범인 것이다.

다섯째 황극은 하나의 지대하고 공정한 표준을 세워서, 그것으로 오복을 거두어 골고루 백성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노력이 이 표준에 부합되어야 비로소 유지되는 것이니 백성들 속에 놓고 먹는 무리, 사사로이 봉당을 짓는 무리들이 없게 하고 모두 세운 표준에 따라 힘쓰게 하십시오. 무릇 백성들 가운데 뜻있는 행동을 하고 도리를 지키는 이가 있으면 당신은 그들을 생각하여 주십시오. 법에 일치하지 않더라도 크게 잘못되는 일이 없으면 크게 나무라지 말고 용서하시어 부드럽게 대하십시오. '나는 덕을 좋아합니다' 라고 하거든 당신은 그들에게 녹을 내리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들은 천자의 법칙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외롭고 의지할 수 없는 사람들을 확대하지 말며 덕이 높고 사리에 밝은 이를 두려워하십시오. 사람들이 지닌 능력과 뜻을 발전시켜 순조롭게 행하도록 하시면 당신의 나라는 창성해질 것입니다. 무릇 바른 사람에게는 항상 풍족한 녹을 내리고, 보다 나은 처우를 해주어야 합니다. 당신께서 그들에게 당신 나라에 공헌하지 못하게 하면 그들은 일부러 허물을 만들어 몰러갈 것입니다. 만약 훌륭한 덕행이 없는데도 당신께서 복을 내리신다면 그들은 오히려 당신에게 재앙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치우치지 않고 기울어짐이 없이 왕이 정한 법을 따를 것이며, 사심으로 치우치지 말고 선왕의 도리를 따를 것이며, 나쁜 일을 하지 말고 선왕의 정로를 따를 것입니다. 치우치거나 봉당이 없으면 왕의 길은 평탄할 수 있으며 치우치거나 봉당이 없으면 왕의 길은 평온할 수 있으며, 일을 뒤집지 말고 기울어짐이 없어야 왕의 길은 바르고 곧을 것입니다. 만일에 이러한 표준이 있다면 모든 사람들은 그 회귀할 곳을 얻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들은 황극을 펴는 말들인데, 법에는 취할 점도 있고 가르칠 점도 있는 것이니 이것이 하늘의 뜻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무릇 백성들이 법칙을 펴는 말을 교훈삼고 실행한다면 천자의 광명에 가까이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천자는 백성의 부모가 됨으로써 천하의 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에서 바로 중국의 인본주의적인 왕도정치의 기본적인 틀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홍범구주는 그 외에 자연에서부터 개인윤리, 사회·정치윤리 그리고 사회·경제·정치 구조에 대한 모든 인간의 생활에 대하여 모범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자의 통

14) 『尙書』, 「洪範」, “天乃錫禹洪範九疇 彝倫攸紘 初一曰五行 次二曰敬用五事 次三曰農用八政 次四曰協用五紀 次五曰建用皇極 次六曰乂用三德 次七曰明用稽疑 次八曰念用庶徵 次九曰嚮用五福威用六極”.

치관은 주의 무왕에게 전수되어 주의 정치문화를 창건하는데 기틀이 되었으며, 또한 유가의 군도의 모범으로 정립되었다.

(3) 유가의 관료관

1) 순임금과 관료제

관료제는 중국의 역사와 같이 할 만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중국에서 대동사회를 이루었다고 알려진 순에게서 관료제의 형태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중국민은 오래 전부터 관료제에 대한 이해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된다.¹⁵⁾ 후세에 기록된 것이라서 그 진위 여부는 확실히 알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재 역사의 인물로는 파악되지 아니한 순의 정치에서도 인재를 등용하여 나라를 운영하고 있음은 그 진위를 떠나서 관료제가 중국의 역사와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왕이 즉위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책임자를 적소에 배치하여 정사를 펴는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이러한 직책은 모두 22개에 달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관직에 임명한 후 3년에 한번씩 공과를 조사하여 상을 주거나 직을 연장시키든지 벌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아 중국 유가의 관료제의 원형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¹⁶⁾

2) 유가의 관료제의 지향점

유가의 왕도정치의 전형이라 일컫는 홍범구주의 셋째 항목에서는 팔정(八政)이라고 하여 국가의 운영을 위한 여덟가지의 정사를 설명하고 있다. 그 첫째는 백성이 풍족히 먹을 식량을 조성하는 것이고 둘째는 풍부히 쓸 만큼의 재화를 생산하는 것이고, 셋째는 조상과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일이고, 넷째는 사공(司空)으로 하여금 백관을 총괄하며 백성을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일이고, 다섯째는 사도(司徒)로서 백성을 교화시키고, 여섯째는 사구(司寇)로서 잘못하는 일이 있을 때는 제재를 해야 하며, 일곱째는 외교에 힘써야 하고, 마지막으로 군대를 길러 국방에 힘써야 한다고 하고 있다.¹⁷⁾

이러한 홍범구주의 셋째 항목은 유가 관료제의 모습과 이 제도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

15) 『尙書』, 『虞書, 舜典』 참조.

16) 앞의 책, 같은 글, “帝曰 咨汝二十有二人 欽哉 惟時 亮天功 三載 考績 三考 黜陟幽明 庶績 咸熙”.

17) 孟子가 王道政治를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이 농사지을 때를 놓치지 않아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면, 먹을 것이 풍족하고 옷감을 짤 수 있어서 부모를 봉양하거나 상례를 치르는데 부족함이 없게 된다고 하였으며 이것이 바로 왕도정치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겠다고 하겠다. 또한 孔子가 백성을 가르치지 않고 싸움터에서 전쟁을 해서는 안된다고 하거나 荀子가 먼저 가르치고 나서 일년이 지나지 않고서 刑罰로 벌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 속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된다.

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관료제는 단지 왕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을 풍족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관료는 백성을 지배하기 위한 왕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이 물질과 정신적으로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왕을 도와서 다스리는 직책인 것이다. 이와 같은 사고는 더 나아가 백성을 단순한 지배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즉 왕과 관료는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고 백성들이 믿고 자신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노력하고, 백성은 이러한 사회 속에서 자신의 업을 충실히 함으로써 가족을 부양하며 적정한 조세를 부담하는 그러한 관계인 것이다. 이러한 사회에서의 왕과 관료와 백성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동일한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존재인 것이다.

3) 관료의 역할

한 나라의 왕의 지위에 오른 자는 그가 우왕(禹王)과 같은 성군(聖君)이나 결(桀)과 같은 폭군이라고 할지라도 국가가 강하고 안락하고 번영하기를 바라며, 국가가 약하고 위험하고 치욕을 받기를 바라지 않을 것이다.¹⁸⁾ 그러나 왕은 혼자서 백성을 다스리기는 어려우며 관료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관료이고, 그 관료를 관리하는 자는 바로 왕인 것이다. 그러나 왕은 존립시키게도 하고 폐하게도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백성이기 때문에,¹⁹⁾ 왕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적합한 관료를 임용하고 관리하는 것인 것이다.²⁰⁾

순차도 군주는 직무에 적합한 관료를 선발하여 국가의 운영을 맡겨야 하며, 만약 그러하지 못하고 군주가 몸소 자질구래한 행정사무의 세세한 곳까지 날마다 처리한다면, 신하들과 업무에 대한 경쟁을 하는 형상이 되어서 국정운영에 군주의 결점이 투영되어 오히려 국정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다.²¹⁾

유가에 있어서 관료의 역할을 목민(牧民)이라고 한다. 이러한 목민의 의미는 맹자에게서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다.

맹자는 관료를 가축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의 위탁을 받아 잘 생육하도록 해야 하는 목자로 비유하고 있다. 가축의 주인은 그 가축들이 잘 자라고 번식하기를 바랄 것이다. 목자는 이러한 주인의 뜻을 받들어서 가축들에게 맑은 물과 신선한 풀을 공급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는 것이다. 목자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 그는 존재의의를 잃는 것이며 그 직에서 물러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이다. 또한 왕은 가축의 주인으로서 관료로 임

18) 「荀子」, 「君道」, “爲人主者 莫不欲彊而惡弱 欲安而惡危 欲榮而惡辱 是禹桀之所同也”.

19) 「荀子」, 「王制」, “君者舟也 庶人者水也 水則載舟 水則覆舟”.

20) 「荀子」, 「君道」, “明主 急得其人 而闇主 急得其執 急得其人 則身而國治 功大而名美 上可以王 下可以霸”.

21) 「荀子」, 「君道」, “親自賈日而治詳 一日而曲辨之 慮與臣下 爭小察 而慕偏能 自古及今 未有如此而不亂者也”.

한 목자들이 가축을 잘 생육하는지 감독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가축의 생육에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목자가 그 직을 사임할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목자를 사임시키고 제대로 가축들을 돌볼 수 있는 목자를 임명하여야 할 의무도 또한 있는 것이다.²²⁾

(4) 민(民)에 대한 인식

유가에서 전통적으로 인간에 대하여 모두 동일한 존재로 보지 않고 그 성품이나 기질에 있어서 차등이 있는 존재로 파악하고 있다. 공자는 천성은 서로 가까우나 후천적인 습성으로 인하여 서로 멀어진다고²³⁾ 하여 인간은 천부적으로는 모두 비슷한 성품을 타고났지만 후천적인 환경과 습관 등에 의하여 차등이 생긴다고 하였다. 그러나 최고의 지혜로운 자와 제일 밑의 우민한 자는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서도 비슷해지지 않는다고 보았다.²⁴⁾ 그래서 孔子는 네 부류로 사람을 분류한다.²⁵⁾ 그리고 맹자도 힘을 써서 살아야 하는 사람과 마음을 써서 사는 사람으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²⁶⁾

이러한 분류는 왕과 제후 등의 지배계급, 그리고 관료계급과 생산계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당시의 신분사회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신분사회에서 유가는 인간의 동일성이 아니라 유별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것은 유가의 정명(正名)이나 직분론(職分論) 등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논리는 당시의 신분구조에 대한 정당화를 부여하여 신분의 고착화를 가져왔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²⁷⁾ 그러나 유가의 원래의 사상은 비록 당시의 신분사회를 인정하고는 있으나 신분의 경직성까지도 주장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오히려 인성과 능력에 따라서 어떠한 지위에도 오를 수 있음을 강조하였던 것이다.²⁸⁾

22) 『孟子』, 「公孫丑 下」, “孟子之平陸 謂其大夫曰……凶年饑歲 子之民 老羸轉於溝壑 壯者散而之四方者 幾千人矣 曰此非距心之所得爲也 曰今有受人之牛羊而爲之牧之者 則必爲之求牧與芻矣 求牧與芻而不得 則反諸其人乎 抑亦入而視其死與 曰此則距心之罪也 他日見於王曰 王之爲都者 臣知五人焉 知其罪者惟孔距心 爲王誦之 王曰此則寡人之罪也”.

23) 『論語』, 「陽貨」, “子曰 性相近也 習相遠也”.

24) 『論語』, 「陽貨」, “子曰 唯上知與下愚 不移”.

25) 나면서 아는 사람은 상이요, 배워서 아는 사람은 그 다음이요, 노력해서 배워서 아는 사람은 또 그 다음이니, 애써 노력하고도 배우지 못하면 백성으로 하등이 되는 것이다(『論語』, 「季氏」, “孔子曰 生而知之者上也 學而知之者次也 困而學之又其次也 困而不學民斯爲下矣”).

26) 혹은 마음을 수고롭게 하며 혹은 힘을 수고롭게 하느니라. 마음을 수고롭게 하는 자는 남을 다스리고, 힘을 수고롭게 하는 자는 남에게 다스림을 받나니, 남에게 다스림을 받는 자는 남을 먹여야 하고, 남을 다스리는 사람은 남에게서 먹고사는 것이 천하를 통하는 원리이다(『孟子』, 「滕文公 上」, “或勞心 或勞力 勞心者 治人 勞力者 治於人 治於人者 食人 治人者 食於人 天下之通義也”).

27) 신기현, 「한국의 전통사상과 평등인식」, 『한국정치학회보(제29집 제2호)』, 한국정치학회, 1995, 414면.

28) 『孟子』, 「告子 上」, “凡同類者 舉相似也 何獨至於 人以疑之, 聖人與我同類者”. 「告子 下」, “人皆可以爲堯舜”. 『荀子』, 「王制」, “賢能不待次而舉 罷不能不待須而廢 雖王公士大夫之子孫也 不能屬於禮義 則歸之庶人 雖庶人之子孫也 積文學 正身行 能屬於禮義 則歸之卿相士大夫”.

유가에서 이와 같이 백성을 도덕적으로 열등한 존재로 파악한 것은 지배층에 의한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존재로 보고자 한 것으로 여겨진다. 수령을 목민관이라고 칭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 의해서라고 할 것이다.²⁹⁾

유가에서는 백성이 생활에 여유가 있는 연후에 비로소 군주에게도 풍요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군주와 백성의 생활은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금은 백성들이 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정해져야 하며, 심지어 흉년에는 조세를 적게 받아서 고통분담을 백성과 같이하는 것이 결국 백성이 군주를 믿게 되며 비로소 부국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백성의 부를 기초로 하여 국부를 이루고자 하는 유가의 국부론은 당시의 혼란한 정세에 패왕을 지향하는 제후들이 수용하기에는 어려웠다.

3. 유가의 이상사회

춘추전국시대의 유가는 예(禮)를 통하여 국가의 질서를 잡고자하였다. 특히 당시의 혼란은 예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즉 각자의 직분에 알맞는 역할을 하지 않고 남의 영역을 넘보고 침해하기 때문에 생겼다고 보았다. 당시의 사회상은 제후가 왕의 자리를 넘보고, 대부의 자리에 있는 자가 제후를 내몰고 그 지위를 차지하는 일들이 많았다. 따라서 공자는 그 시대의 질서는 먼저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하는 데서 출발하여야 한다고 보았고 그 기준으로 주나라의 법인 주례(周禮)를 들었다.

그러나 유가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는 단지 예(禮)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그러한 국가가 아니었고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대동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대동사회는 중국인들이 이상향의 시대로 여지는 요순시대를 말한다. 예기에서는 이 시

29) 논어에는 춘추시대의 노나라 애공(哀公)과 공자의 제자인 유약의 대화가 있는데, 백성에 대한 유가의 관점이 잘 나타나고 있다. 애공은 당시의 조세를 산출량의 1/5에 해당하는 양을 세금으로 거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느 해에는 흉년으로 말미암아 생산량이 급감하였고, 결국 세수의 부족으로 국정운영에 어려움이 생겼던 것이다. 그런데 유약은 철법(徹法)을 시행하여 종전보다 더 적은 세율인 산출량의 1/9내지는 1/10을 세금으로 거두라는 것이다. 철법은 주나라의 세법으로 공전(公田)에 대하여 산출량의 1/10을 조세로 내게하는 것이다. 맹자는 이러한 경세(輕稅)의 사상을 이어서 정전법에 의한 1/9세와 1/10세를 주장한다. 정전법이란 900묘의 토지를 '井'자로 나누어 주변의 100묘의 토지는 8집에서 각기 경작하고 가운데의 100묘의 토지는 공동으로 경작하여 조세로 바치는 세법으로 읍 밖에 사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조세법이다. 그리고 읍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산출량의 1/10을 수세하였다(『孟子』, 「滕文公 上」, 「野人九一而助國中什一使自賦」). 철법을 주장한 이유는 바로 국부는 조세를 적게 받아서 백성이 생활이 풍족한 연후에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論語』, 「顏淵 第12」, 「哀公問於有若曰年饑用不足如之何有若對曰盍徹乎曰二吾猶不足如之何其徹也對曰百姓足君孰與不足百姓不足君孰與足」).

대를 가르켜,

옛날에 큰 도가 행해지고 삼대(夏·殷·周)의 현자들이 그 도를 행하여진 때가 있었다. 내가 직접 보지는 못하였지만 기록에 남아 있다. 그 도가 행하여진 세상에는 천하가 모두 만인의 것이 되어 있었다. 백성들은 현자와 능자를 선출하여 관직에 임하게 하였고, 인간상호간의 신뢰와 화목을 도모하였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기의 부모만을 부모로 생각하지 아니하였고 자기의 자식만을 자식으로 생각하지 아니하였으니, 노인에게는 그의 생애를 편안히 마칠 수 있게 하였으며, 젊은 장정에게는 충분한 일을 시켰으며, 어린아이들에게는 마음껏 성장할 수 있게 하였으며, 과부 고아 불구자에게는 고생 없이 살 수 있도록 돌보아 주었으며, 성년남자에게는 일정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분을 주었으며, 여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남편을 갖게 하였다. 재화는 헛되이 낭비하는 것을 부도덕시 하였으나 반드시 자기의 사리를 취하기 위해서만 쓰지 않았다. 그러므로 사리사욕을 도모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며, 도적이나 난적이 생기지 않았다. 따라서 아무도 대문을 걸어 잠그는 법이 없었다. 이것을 일컬어 대동(大同)이라 한다.³⁰⁾

고 하였다.

이 사회는 공자가 말하는 인(仁)이 구현된 사회인 것이다. 각자는 자기의 능력에 알맞은 일을 하며, 사회구성원끼리 서로 믿고 따르며 살아간다. 그리고 자기의 가족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생활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걱정하며 돌보아 줄 수 있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 나가는 사회인 것이다. 유가는 바로 이러한 대동 사회의 구현을 목표로 하였던 것이다.

4. 결 론

원시유가는 당시의 다른 제자백가와 마찬가지로 춘추전국시대의 혼란을 바로잡기 위한 현실적인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그들이 추구하는 문제해결방법은 당시의 사회상은 왜곡에서 출발하였고 그러한 왜곡을 바로 펴는 것이 곧 혼란을 바로잡는 방법이라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당시에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인식이 되었고, 당시의 공자나 맹자 그리고 순자는 제후들에게서 지속적인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오히려 묵가나 법가들이 제후들의 신임 속에서 그 세력을 펼 수 있었다.

30) 『禮記』, 「禮運」, “大道之行也 與三代之英 丘未之逮也 而有志焉 大道之行也 天下爲公 選賢與能 講信脩睦 故人不獨親其親 不獨子其子 使老有所終 壯有所用 幼有所長 矜寡孤獨廢疾者皆有所養 男有分 女有歸 貨惡其棄於地也 不必藏於己 力惡其不出於身也 不必爲己 是故謀閉而不興 盜竊亂賊而不作 故外戶而不閉 是謂大同”.

법가의 법을 수용한 군주는 전국시대의 혼란을 종식시키는 강력한 군주를 탄생시켰다. 그러한 법가의 법은 통일국가를 유지하기에는 너무 가혹하였다. 따라서 한이 중구을 통일하고 유가의 사상을 받아들인 것은 역사적 필연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유가에서 지향하는 통치관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왕은 현자이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현자의 모습은 플라톤이 정치를 담당하여야 한다는 철인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철인이 이데아의 세계를 직시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왕이 될 수 있는 자는 만물의 이치를 체득하고 이를 인간의 규범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하는 존재이다. 이는 플라톤이 말하는 철인이 이데아의 원형의 세계를 알기 때문에 진실한 법을 제정할 수 이다고 보는 것과 유사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철인과 성왕의 다른 점이 있다. 그것은 철인이 만든 법은 이데아에 대한 정확한 모사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정당성을 인정받는다. 따라서 이러한 법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국가적 강제는 당연할 뿐 아니라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모습에 대하여 성왕에게 요구되는 것은 올바른 규범의 제정뿐만 아니라 성왕의 올바른 행동도 요구된다. 규범은 단지 성왕이 만들었다는 이유로 정당성을 갖는 것이 아니다. 규범은 윤리도덕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의 구성원이 준수가능한 규범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성왕으로서 철저히 도덕적인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한도 내에서 법은 규범으로서 수범자에게 지키라는 요구가 나타난다. 그러나 강제가 아니라 성왕이 직접 모범을 보임으로써 느껴 행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왕으로서의 통치행위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이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간단하게 말하여 가정윤리가 가능하게 하고 경제적 안정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인재를 등용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천하를 자기의 소유라고 인식하지 말고 중용의 마음을 가지고 민심을 기를 수 있는 자를 선택하여 그 뒤를 잇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유가적 사고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구분은 인정하고 있으나 이들의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의존하고 도움을 받는 동반자적 관계로 파악하고 있다.